

동네방네

안동시, 코로나19로 비대면 민원 급증

안동시는 코로나19 이후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보다 비대면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급증했고,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민원서류도 전년 대비 20% (전년 5만4105건/올해 6만5179건) 증가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각종 신고, 불편·불만 사항의 경우 지난해 동기 1830건이던 것이 올해는 3100여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공적 마스크 대리구입,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수요량 증가로 판단된다. 안동시는 올해 2대를 추가 설치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장성 황룡강 따라 펼쳐진 꽃길. 지난 17일 장성군 황룡강에 활짝핀 노란꽃장포가 꽃길을 이뤘다. /장성군

곡성군, 37억규모 농어민 공익수당 일괄지급

자격을 검증된 대상자 6227명 확정 곡성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약 37억을 상반기 내 전액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자 이를 타개하고자 상반기

에 60만원을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얼마 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개최해 신청자에 대한 지급대상 자격 검증하고 지급대상자 6227명을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지난 13일부터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곡성심정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당을 신청한 읍면 소재지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상주시, 청년 창업형 후계농 21명 선발

상주시는 주요 국정과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2020년 청년 창업형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1명을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주시의 청년 창업농은 2018년부터 2년 간 선발된 49명을 포함해 총 70명으로 경북에서는 최대의 인원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의무 영농에 종사

함으로써 독립경영(농업경영체 등록을 개시 시점) 3년차까지 최대 100만원을 매월 지원받게 되며, 창업자금(융자 최대 3억) 농지은행 매입비축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 우대지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등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0 | 해질 / 19:37

5월 18일(월) 음력 : 4월 26일

수도권 날씨 25~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5/26, 동두천 15/26, 가평 15/26, 파주 14/25, 서울 17/25, 양평 17/27, 인천 16/24, 수원 17/25, 용인 17/25, 평택 15/26, 백령도 13/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코로나 위기에도 '든든'

경북통상, 해외수출 51% 증가

경북도내 32개 업체 농특산물 4월에만 수출액 47억 기록 美·동남아 등 적극적 해외마케팅

경북도 출자기업인 경북통상(주)의 수출이 '코로나사태'에도 크게 늘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통상(주)의 4월 말까지 수출액은 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억원보다 18% 늘었다. 4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47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 4월 31억1500만 원보다 51%가 늘었다. 경북통상(주)은 현재 도내 32개 업체가 생산한 파프리카, 사과, 배, 포도, 딸기, 참외 등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220여 품목을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2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지역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매년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동남아 방문 때 베트남 최대 그룹인 빈 그룹 쉐퍼 회장과 임원단을 만나 빈마트에 경북 농식품 신규입점을 성사시켰고, 한



경북통상 농특산물 해외수출 급증하고 있다. /경북도

인유통업체인 K-마트와 통상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미주지역 방문 때는 LA지역 한인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유틀리USA, 뉴저지에 본사를 둔 H-마트와 뉴저지 한인상공인연합회와 수출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의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동경지부와도 통상확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벌이면서 지역 특산물 중심의 수출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베트남의 K-마트 고상구 회장, 미국의 H-마트 권인연 회장, 한남체인 하기환 회장, 그리고 일본의 히토시나

상사 김규환 대표는 경북도 해외자문위원으로 경북도 농특산물의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통상(주)은 1994년 도내 농특산물 등의 수출활성화와 유통창구로 설립돼 지역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유통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4년부터는 수출전문회사로 전환하고 수출국 다변화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개척과 마케팅활동으로 매출이 매년 늘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 3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고양시, QR코드로 코로나 대응 '차별화'

출입구 번잡 없애고 방역망도 촘촘 불특정다수 방문자, 데이터베이스화 입력된 정보 2주 후 자동 삭제 처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고양시가 또 다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청사출입을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방문자들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철저하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상황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와 킨텍스 캠핑장 선별진료소에 이은, 고양시만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코로나19대응방안이다.

지난 5월 6일, 이태원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소강국면에 제동이 걸렸다. 참석자들 중 일부가 거짓 인적사항을 남기는 바람에 확진자, 접촉자 등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철저한 방문객 관리와 관련해 논란도 일었다. 고양시는 방문자들의 정확한 인적사항 관리에 주목했다. QR코드 시스템을 적용하면 사전에 정확하게 입력된 정보를 활용, 방문내역과 인적사항을 장부에 적고 용건을 묻고 답하느라 어수선했던 출입구의 번잡함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또한 방문하는 모든 인원의 인적사항을 철저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방역망의 틈새도 철저하게 메울 수 있

다. 우선 QR코드는 수기로 작성한 청사 출입기록대장을 활용해, 스마트폰 QR코드로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운영한다. 방문자는 개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성화해 QR코드를 스캔하고, 개인정보동의·방문자 성명·핸드폰번호·방문부서 등의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한 정보는 2주 후 자동 삭제되도록 조치했다. 방문 시 안내데스크에 부착된 QR코드를 방문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핸드폰 미소지자 및 QR코드 이용 거부자는 PC에 수기 입력해야 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영양의 인도, 시설물로 되레 안전위협

(人道)

자치 현장

차도(車道)는 차가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인도(人道)는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 하지만 영양읍은 차도(車道), 인도(人道) 모두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로등, 주차장 금지 간판, 소화전 등 시설물, 조형물 등 때문에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도 도사리고 있다. '영양사랑' 문모씨는 "영양읍 인도가 관리가 엉망진창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행정청이 군민보다는 시설물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업체의 민원을 들어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업체가 설치하기 쉬운 곳,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는 시설물과 조형물을 잘 정돈된, 즉 위치나 방향, 그리고 인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를 면밀히



시설물 사진
 파졌더라면 이런 불편하고 위험한 인도는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는 범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영양읍 전체 인도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주민편의,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